

잇단 금리인상에... '가계대출' 줄고 정기예금 늘었다

정기예금 광주 10조6389억·전남 15조5488억원...역대 최대 은행 가계대출 5년 만에 '마이너스'...3분기 연속 감소세 이어져

올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2번을 포함해 금리 인상이 잇따르면서 광주·전남 예금은행 정기예금 수신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지역 은행 가계대출은 5년 만에 '마이너스'를 나타내며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예금은행 정기예금 총예금(이하 말기 잔액 기준)은 광주 10조6389억원·전남 15조5488억원 등 26조1877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낸 2008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3분기 광주·전남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26

조1877억원으로, 지난해 말(17조8127억원)보다 47.0%(8조3750억원)나 뛰었다.

지역 대표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에서 지난달 새롭게 개설된 예금과 적금계좌는 각각 1만5376좌와 1만1593좌에 달한다.

이는 국내 기준금리가 1%대에 머물렀던 지난해 연말보다 예금은 2.4배, 적금은 1.4배 된 규모다.

은행권 예금이 올해 들어 역대 최대로 치솟은 건 금융권 수신금리 경쟁에 시중은행도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중은행에서도 연 5% 예금 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정기예금 등 수신금

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이 2금융권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자금 이동' (머니 무브)을 촉발하는 것은 물론 대출금리 상승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3분기 말 기준 광주·전남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58조151억원으로, 지난해 말(59조2202억원)보다 2.0%(-1조2051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에서 광주·전남 가계대출은 1조375억원(-3.3%) 줄었고, 비은행권에서는 1676억원(-0.6%) 감소했다.

지난 연말 광주·전남 가계대출 잔액은 예금은행 31조3665억원·비은행 27조8537억원이었지만, 은행 가계대출 감소세가 더 가팔라 올해 3분기 들어서 대출 잔액은 은행 30조3290억원·비은행 27조6861억원 등으로 격차가 좁혀졌다.

광주·전남 예금은행에서의 가계대출 감소세는

직전 분기 대비 2021억원 감소했던 지난 2017년 1분기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지역 예금은행 가계대출 감소는 올해 1분기(-3812억원)와 2분기(-3170억원), 3분기(-3393억원) 등 3개 분기 연속 지속하고 있다.

광주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기준 8조8004억원으로, 지난해 말(9조5144억원)보다 7140억원(-7.5%) 줄었다.

광주·전남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새마을금고와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났지만 상호금융에서는 3600억원 넘게 감소했다.

올해 3분기 비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연말보다 1676억원 줄어든 가운데 새마을금고는 1817억원 증가(4조8730억원→5조5474억원)하고, 신협은 296억원(4조8027억원→4조8323억원) 늘었다.

반면 상호금융 대출 잔액은 3631억원 감소(17조5624억원→17조1993억원)하고, 상호저축은행에

서도 144억원(5449억원→5305억원) 줄었다.

지난 9월 전남지역 144개 농·축협 상호금융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1조3753억원 늘며 20조원을 돌파했지만, 연체율은 1%대로 올라 대출 부실 우려가 커졌다. 전남 농·축협 상호금융의 2020년과 2021년 연간 연체율은 각각 0.79%, 0.72%였지만 올해 들어 1%대로 올랐다.

한편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금융권 수신금리 경쟁과 탈자본 현상에도 또 다른 변화가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적금 금리가 급등하고 은행 등 시장금리도 오르면서 은행의 조달 비용이 늘어 그 부담은 결국 대출자에 떠넘겨지고 있다.

이날 기준 국내 5대 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은 연 7.832%로, 8%대 진입을 코앞에 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민 여성 농업인 '멘토-멘티' 간담회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24일 목포의 한 행사장에서 '이민 여성 농업인 일대일 맞춤형 농업교육'의 하나로 연 '멘토-멘티' 연말 간담회에서 참가자 100여 명이 우수 교육 사례를 발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전남 서남권은 사업체 수·전남 동부권은 매출액 '최고'

광주·전남 1000명당 사업체 수 138.6개...동부권 매출 10억원대

광주·전남 권역을 '광주 대도시' '전남 서남부' '전남 동부'로 나뉘었을 때 인구 1000명당 사업체 수는 전남 서남부가 많았지만, 평균 매출액은 동부가 유일하게 10억원대를 넘어 최고를 나타냈다.

이 같은 내용은 호남지방통계청이 지역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만든 '광주·전남 생활권역 통계분석' 자료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광주·전남지역 인구 1000명당 사업체는 138.6개로, 10년 전인 2010년(101.1개)보다 37.5%(37.1%) 늘었다.

이는 전국 평균 사업체 수(1000명당 143.6개)보다 5개 모자란 수치다.

2020년 기준 사업체 수는 전남 서남부권 144.2개, 광주 대도시권 137.3개, 전남 동부권 137.1개

순으로 많았다.

최근 10년 동안 사업체의 증가율을 따지면 전남 서남부가 41.8%(101.7개→144.2개)로 가장 높았고, 전남 동부 39.5%(98.3개→137.1개), 광주 대도시 34.3%(102.2개→137.3개)가 뒤를 이었다.

업체 포화도는 전남 서남부가 가장 높았지만,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전남 동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0년 기준 광주·전남지역 사업체 평균 매출액은 8억2900만원으로, 10년 전(8억200만원)보다 3.4%(2700만원) 늘었다.

광주 대도시의 2020년 평균 매출액은 7억9300만원이었고, 전남 서남부는 5억58000만원으로 두 권역 모두 전국 평균 매출액(9억700만원)을 밑돌

았다.

반면 전남 동부 매출액은 11억800만원이었는데, 하지만 이는 10년 전(13억5100만원)보다 18.0%(-2억4300만원)나 급감한 금액이다.

광주 대도시권은 광주시와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으로 묶인다. 전남 서남부권은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을 포함한다. 동부권에는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이 들어간다.

호남통계청은 "광주·전남 사업체는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광주 대도시권은 서비스업, 전남 서남부권은 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업, 동부권은 숙박·음식점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학연금, 1000억대 펀드 운용사 4곳 선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벤처캐피탈(VC) 블라인드 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로 다올인베스트먼트, LB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넵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학연금 국내 VC 출자 규모는 총 1000억원 이내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억원 확대한 규모다.

4개 위탁운용사에게 25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사학연금은 지난 10월4일부터 제안서를 받아 1

차 정량평가를 하고 8개사를 주려냈다. 이들 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2일 투자심의위원회의 정성평가를 거쳐 4곳의 위탁운용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주명현 이사장은 "우수한 VC 위탁운용사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기금운용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최근 경색된 벤처투자시장 완화하고 및 일자리 창출 등 투자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장흥 2곳·순천 1곳 '우수조달물품' 지정

광주·전남 총 73개사 86개 품목

광주지방조달청은 전남기업 3개사 제품이 '2022년 3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광주·전남지역 우수조달물품은 73개사 86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기업의 공공발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

의계약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기본 3년이며 기술개발, 고용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주식회사 제이엔피(장흥)의 '고탄성 삼중벽 내충격 PVC 상하수도관', ㈜원엔지니어링(장흥)의 '단열 및 내진성을 향상시킨 에너지절약형 미서기장', ㈜휴플러스(순천)의 '갑성데크'이다.

노배성 광주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조달물자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지역의 우수한 기업들이 조달시장에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h1>토지 매매 (담양)(장성)</h1>	<h2>경매교육 [특수 전문반]</h2> <p>기초반, 중급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양 프로방스 앞 (7,500평) ■ 임야 : 7,500평 ■ 1차 허가 완료, 개발토지, 최고 위치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담양 창평면 - 9,000평 (계획관리) ② 담양 무정면 - 1,200평 (1종주거지역) ③ 장성읍 상오리 (장성댐) 전원주택 (150평) ④ 장성읍 야은리 (황룡강면) 전원주택지 (200평) ⑤ 장성읍 야은리 전원주택 2층 - 2억3천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서구풍암동 (상가주택)</td> <td>▶</td> <td>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6천</td> </tr> <tr> <td>광산구 수완동(운솔의아침)</td> <td>▶</td> <td>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td> </tr> <tr> <td>북구 삼각동 (어린이집)</td> <td>▶</td> <td>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2천</td> </tr> <tr> <td>북구 신안동 (공장)</td> <td>▶</td> <td>감정가 13억 → 최저가9억2천</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공장)</td> <td>▶</td> <td>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16억</td> </tr> <tr> <td>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td> <td>▶</td> <td>감정가 5억 → 최저가 2억8천</td> </tr> <tr> <td>영암군 심호읍 (숙박시설)</td> <td>▶</td> <td>감정가 20억 → 최저가 7억</td> </tr> <tr> <td>장성읍 안평리 (농지)</td> <td>▶</td> <td>감정가 17억 → 최저가 12억</td> </tr> </table>	서구풍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6천	광산구 수완동(운솔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2천	북구 신안동 (공장)	▶	감정가 13억 → 최저가9억2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16억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 → 최저가 2억8천	영암군 심호읍 (숙박시설)	▶	감정가 20억 → 최저가 7억	장성읍 안평리 (농지)	▶	감정가 17억 → 최저가 12억
서구풍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6천																							
광산구 수완동(운솔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2천																							
북구 신안동 (공장)	▶	감정가 13억 → 최저가9억2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16억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 → 최저가 2억8천																							
영암군 심호읍 (숙박시설)	▶	감정가 20억 → 최저가 7억																							
장성읍 안평리 (농지)	▶	감정가 17억 → 최저가 12억																							
<p>010-6670-9800</p>	<p>010-2614-9801</p>																								